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 1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미세플라스틱, 남극 크릴 먹이 배출 증가 확인 3
2. 나일론 양식 그물, 다른 소재보다 미세플라스틱 5배 더 배출 4
3. 트럼프, 수산 조항 포함된 2026년 미 군사 지출 법안 서명 5
4. 영국-한국 무역협정 연장, 연어 수출업계에 긍정적 효과 6

- 호주 태즈매니아 대학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남극 크릴의 먹이 배출을 증가시켜 에너지 섭취와 해양 생태계·탄소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음
 - 크릴의 먹이 볼러스 형성과 탄소 이동을 연구하던 중, 실험 과정에서 섞인 미세플라스틱(의류 섬유·플라스틱 스펀지 조각)이 크릴의 볼러스 배출 빈도를 높인다는 점이 확인됐음
 - 크릴은 남극 해양 먹이망과 탄소 수송의 핵심 종으로, 볼러스의 잦은 배출은 먹이 섭취 기회 상실과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식물이 풍부할 때의 볼러스 배출 증가는 문제가 아니지만, 먹이가 제한된 상황에서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배출이 늘면 크릴의 생존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증가,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남극 크릴 어획 압력이 겹치면서, 취약한 남극 생태계에 대한 신중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microplastics-found-to-cause-antarctic-krill-to-eject-food-more-often-than-normal> ('25년 12월 30일 검색)

2 나일론 양식 그물, 다른 소재보다 미세플라스틱 5배 더 배출

- 노르웨이 연구기관 SINTEF는 양식용 나일론 그물이 다른 소재보다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5배 더 배출하며, 소재·코팅·세척 방식 개선이 저감의 핵심이라고 밝혔음
 - 나일론 그물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이 가장 많았고, UHMWPE*는 가장 적었으며 HDPE**는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 * **Ultra-High-Molecular-Weight Polyethylene**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 **High-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 폴리에틸렌
 - 코팅된 나일론 그물, 특히 고급 코팅 사용 시 미세플라스틱 배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고압수 세척도 배출을 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 미국 메인주의 일부 굴 양식장은 플라스틱 없는 목재 장비를 도입해 성장 속도 개선과 폐사율 '제로' 성과를 거두었음
 - SINTEF는 내구성 높은 소재 선택, 적합한 코팅 사용, 덜 마모적인 세척 기술 도입이 양식업발 미세플라스틱 저감의 핵심이라고 밝혔음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ylon-aquaculture-nets-found-to-release-five-times-more-microplastics-than-other-materials> ('25년 12월 30일 검색)

3 트럼프, 수산 조항 포함된 2026년 미 군사 지출 법안 서명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미 군사 지출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함
 - 해당 법안은 12월 10일 하원을 통과하고 12월 17일 상원을 통과한 뒤 다음 날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16년에 재협상된 남태평양 참치 조약의 내용을 미국 연방법에 반영한 것임
 - 1987년 최초 체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조약과 달리 미국 국내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미국 선망 참치 선단이 그동안 양해각서에 근거해 조업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해당 공백이 해소됨
 - 아메리칸사모아 지역구 라데바겐 하원의원이 추진해 온 남태평양 참치 조약 이행 법안은 군사 세출법에 포함되며 상원 통과를 확보했고, 미국 참치 선단 운영의 안정성과 국가 식량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법안에는 중국·이란·북한·러시아산 수산물을 미군 급식시설과 군 매점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됨
 - 또한 상업 어업인이 어구 표시 목적으로 자동식별시스템(AIS) 장비를 2029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아울러 2026-2027 회계연도에 대한 어선 안전 보조금과 안전 교육 보조금이 재승인됨
 - 반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선박 블랙리스트를 도입하는 FISH Act와 어류 피부를 활용한 화상·폭발 부상 치료 시범사업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제외됨

※ 출처: SeafoodSource³⁾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trump-signs-2026-military-bill-with-seafood-measures-attached> ('25년 12월 30일 검색)

- 영국과 한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 합의하며 2026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기존 양국 간 무역협정을 연장하여 스코틀랜드 연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협정으로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억 파운드(미화 27억 달러, 약 23억 유로) 규모의 영국 수출품이 관세 인상으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영국 기업통상부에 따르면, 세계 12위 경제국인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간 32% 증가해 2024년 기준 158억 파운드(미화 212억 달러, 약 180억 유로)에 달함
 -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과 제약 산업을 포함한 영국의 주요 산업뿐 아니라, 식품·음료 수출업계도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관세 교역 연장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스코틀랜드 연어는 영국의 최대 식품 수출 품목으로, 업계 단체인 살몬 스코틀랜드(Salmon Scotland)는 올해 연어의 해외 판매액이 처음으로 10억 파운드(미화 13억 달러, 약 11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으로의 연어 수출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21만 4천 파운드에서 225만 파운드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음. 다만 지난해 수출액이 36만 6천 파운드까지 회복된 가운데, 이번 무역 협정은 스코틀랜드 생산자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다시 도약하고 최근 아시아 시장 호황을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FTA에는 통관 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전용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입 허가 요건의 명확화, 국경 검문소에서의 수입 검사 시 투명성 강화, 대부분 48시간 이내에 완료되는 예측 가능한 통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경 간 물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 SeafoodSource⁴⁾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k-south-korea-trade-deal-extension-delivers-welcome-boost-for-salmon-exporters> ('25년 12월 30일 검색)